

한국타이어, 타이어 분할 후 재상장

한국타이어(대표 서승화)가 10월4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된다고 한국거래소가 9월27일 발표했다.

기존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제조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되는 한국타이어는 자본금 619억원에 상장 주식수는 보통주 1억2387만주 이상이다.

존속회사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로 변경 상장돼 지주회사로 남는다.

<화학저널 2012/09/28>